



7면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 철회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음 3월 17일) 제3492호

대표전화 (063)288-9700



24일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현장에서 열린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및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규제혁신부터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바이오규제혁신센터 현판식

전북특별자치도 개정 통한 바이오특화단지 정책 마련
정읍 첨단산단 복합문화센터 개관식도 함께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장(전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지원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

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는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 R&D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산학연관 연계 강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법적 권한을 도지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감정이 있어 향후 센터에서 발굴된 바이오 분야 특례사항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첨단 바이오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풀지 못했던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전북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실증특례를 통해 샌드박스도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우리 전북자치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도 함께 열렸다.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에서 정부 다부처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0년 전북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 지방비 98억원 등 총 11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이 추진됐다.

건물은 2개 동 연면적 약 3,100㎡ 이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물로는 △생활체육실 등 체육공간 △중앙리빙과 북카페 등 문화공간 △대강당, 다목적실, R&D지원센터 등 회의공간으로 구성됐다.

향후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돕는 복합 문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복합문화센터 개관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까지 책임질수 있는 '직장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정읍=김대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 급증
전북자치도, 예방접종 등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가 4월 기준 의사 및 환자 포함 293명으로 지난해 동기(15명) 대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적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 조치 강화로 환자발생이 현저히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등급항량 조정 이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4월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전국 293명, 전북자치도 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질병관리청 감염병통계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는 19세 이하 어린이·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린이·학생은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전북자치도는 의료기관에 12세 이하 어린이가 내원 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접종시기가 되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의심환자에게는 백일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을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협력 본격

노사정 추천 분과협의회 위원 참석 '킵오프 회의' 현대차 전주공장·타타대우상용차 미래 전략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협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위원을 모아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관련사진 2면)

이번 회의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완성차 기업의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노사상생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의 상용차산업 상생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부 및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상용차산업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의 미래전략에 대해 각 기관·기업에서 발표하고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주제발표 이후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9일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선언 및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식 이후,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과 고용·일지리의 공정한 전환,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는 △R&D·기반조성, △인력양성, △미래차보급, △노사상생 분과로 나뉘며, 노사정 추천 위원 40명을 분과별로 고르게 나누어 구성했다.

향후 분과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대정부건의안은 정책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각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분과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결정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전환이라는 중대한 기로 속에 노사정이 함께 역할을 모아 미래 상용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

AI 신약 플랫폼 구축 등 전북자치도와 함께 추진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전북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을 24일 교내 60주년기념관 아트스페이스 홀에서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주관한 이날 비전 선포식은 지자체, 대학,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글로벌대학 목표인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실현 결의를 다지고, 전북 바이오산업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선포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해

원광대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인력양성 교육에 매진하며, 특히 AI 신약 플랫폼 구축 △오가노이드 뱅크 구축 △오가노이드 오감온어집 소부장 개발을 통한 정밀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비전 공유와 달성을 위해 준비된 주제 발표는 원광대 정성태 기획처장의 '글로벌대학 혁신기획'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전 원장의 '제2의 비상-글로벌 바이오테크 선도대학'에 이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박영민 단장의 '국가신약개발재단 소개 및 전북의생명과학발전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